

엘라스틴, 도브 따돌리고 샴푸 1위!

슈퍼마켓 판매실적 LG생활건강 압도 ... 프리미엄 샴푸 시장 경쟁 후끈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생활용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이 한창이다.

2003년 국내 샴푸 시장규모는 약 2200억원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프리미엄 샴푸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업들은 2000년까지 400억원을 밑돌았던 시장이 2003년 1000억원에 달해 전체시장의 45%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과 CMS(www.cms.co.kr)가 전국의 약 200개 대형 슈퍼마켓 판매실적을 토대로 2002년 12월의 프리미엄 샴푸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LG생활건강의 <엘라스틴>이 19.6%로 선두를 달리고 그 뒤를 유니레버의 <도브>(13.6%)와 한국P&G의 <팬틴>(10.5%)이 쫓고 있다. 4위는 애경산업의 <케라시스>(3.9%)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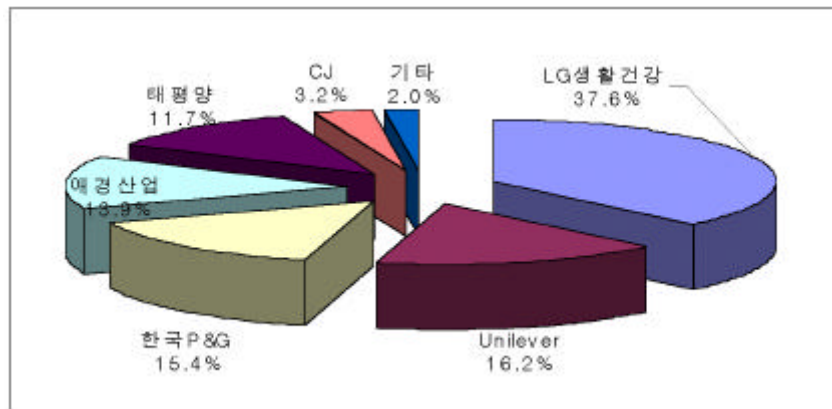
프리미엄 샴푸에서는 <엘라스틴>의 도약이 돋보였다. 11월까지도 샴푸 시장에서는 <도브>가 선두였다.

물론 생활용품은 할인점 유통이 30%를 차지하고 있어 슈퍼 중심의 점유율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외국계는 백화점·할인점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어 슈퍼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LG가 CMS 점유율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조사전문회사 AC닐슨이 파악한 2002년 11월 시장점유율은 <도브>가 2002년 10월 14.1%에서 14.5%로, <팬틴>이 14.3%에서 16.9%로, <엘라스틴>이 11.4%에서 13.0%로 각각 상승했다.

<도브>와 <팬틴>이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도 <도브>는 약보합세이고 <엘라스틴>은 상승세라는 추이는 뚜렷하다.

샴푸 시장점유율(2002.12)



<도브>가 부진했던 이유는 유니레버가 2002년 11월 출시한 슈퍼 프리미엄급 샴푸 <릭스슈퍼리치>에 힘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엘라스틴>은 10월 퍼밍리프트, 하이드라 모이스처 등 모발 타입별로 골라 쓸 수 있도록 제품군을 보강해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벌여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LG생활건강은 2003년 연평균 시장점유율을 17%대로 끌어올려 <엘라스틴>을 전체 샴푸 중 1위 브랜드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유니레버는 <릭스슈퍼리치> 샴푸와 <도브>를 내세워 2004년에는 샴푸시장 점유율을 27%로 끌어올려 1위 LG생활건강을 꺾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